

인사말



2011년 회원님들의 가정에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코윈에게 매우 바쁘고 신나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더욱 번성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1년의 첫 발걸음으로 이미 기획된 코윈행사와 새롭게 구성된 주요 분과위원회에 대해 소개드리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뉴스레터에는 여러분의 소식을 담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윈 멤버들 그리고 코윈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다면 **7월 15일까지** thelma.choi@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다음 뉴스레터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들간의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의사소통과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위하여 코윈 디씨 지부의 웹사이트를 신설, 개발 준비중에 있습니다. 웹 사이트 신설 개발 및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웹 위원회에 동참하시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1년 코윈 디씨 지부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제 2회 차세대 리더십 세미나'를 5월 말 혹은 6월 초에 주최하도록 기획 중에 있습니다. 세미나의 지속적인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올 한해도 여러 모금 행사가 계획되어 있사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윈은 여러분의 단체입니다. 네트워킹과 이벤트 등 여러 모임에 직접 참석하시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회장, 남명호 올림

차세대 리더십 세미나 및 멘토링 프로그램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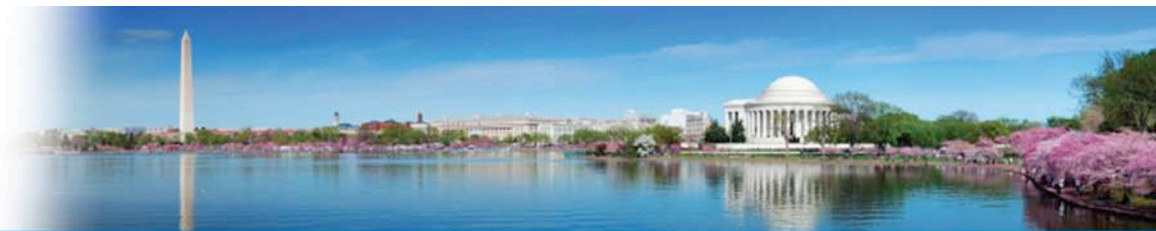
코윈 디씨 지부는 지난 11월 21일, 주미 한국대사 관저에서 한국계 미국 여성 및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리더십 세미나 및 멘토링 프로그램: Raising the bar' 를 개최했다.

한국 여성가족부의 '차세대여성양성보조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미국 워싱턴지역의 여성들을 창조적이고 경쟁력있는 차세대 리더로 발굴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장차 이와 같은 한인여성이 한미 양국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 약 130여명의 차세대 여성들과 관계자들의 활발한 참여속에 진행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차세대리더십 세미나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In this Issue...

- 환영인사
- 차세대 리더십 세미나 및 멘토링 프로그램
- 코윈 디씨 지부 2010년 송년행사 및 모금활동
- 2011년 상임 및 주요위원회 기획회의
- 2011년 코윈 디씨 지부 주요위원회 조직
- 2011년 주요행사 안내
- 회원소식
- 특별기고: G-20 정상회담

발행인	Myong Ho (Lucy) Nam, M.D. President, KOWIN DC Chapter,
	Young-Key Kim-Renaud, Ph.D. Chair, Communication Committee
편집장	Sue-Kyong Shin Vittas Chair, Publication Committee
교열 편집인	ChanSu Chong, Balbina Hwang, Ph.D.
편집인	Thelma Seo Eun Choi (thelma.choi@gmail.com)



기조연설자로 선 미 외교협회 방문연구원 수테리 박사(전 국가안보위원회 동아시아지역 차관보)는 3P를 제시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Push yourself) 일관성있게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Persistent) 열정적(Passionate)으로 도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 (Grace Chung Becker), 의료 (Victoria Yongsuk Suh, M.D.), 학계 및정책분야 (Balbina Hwang, Ph.D.), 미디어 (Jennie Park), 학계 (Young-Key Kim-Renaud, Ph.D.), 비즈니스 (Mihae Kim), 예술 (Komelia Hongja Kim), 국제기구 (Sue-Kyung Shin Vittas) 등에서 온 8명의 멘토들이 참여하여 차세대 여성들에게 커리어와 삶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세미나 전 과정의 진행을 맡은 Florence Lowe-Lee 와 더불어 그룹별 멘토링 시간을 위해 총 8명의 토론 진행자 (ChanSu Chong, Julie Soohyun Koo, Sami Lauri, Jung Sil Lee, Ph.D., Kwang J. Sunny Lee, Florence Lowe-Lee, Myong Ho (Lucy) Nam, M.D., Kathy Park, and Thelma Seooun Choi) 가 참여하였다.



대다수의 세미나 참가자들은 코윈의 미션을 지지하고 디씨 지부의 활동을 참여하는 '코윈 디씨 지부의 친구들 (Friends of KOWIN DC Chapter)' 에 가입하여 향후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케 했다.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와 **최아영** 여사가 참여하여 참려자들을 독려하며 자리를 빛내주었다.

2010년 송년파티: 여성들의 육체, 정신, 사회, 문화적 웰빙의 향연

지난 12월 28일 한해를 마무리짓는 송년행사로 여성들의 육체, 정신, 사회, 문화적 웰빙의 향연 (Celebrating women's physical, mental, social, and cultural well being) 행사를 이노바 페어팩스 병원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했다. 이번 송년행사는 회원들의 짧은 강연과 그림, 귀금속 등 아트 전시회로 이루어졌다.



첫번째 강연을 맡은 김홍자씨는 (몽고메리 예술대학, 교수) 'Collecting Art'라는 주제로 미 동부지역과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 예술행사에 대해 알렸다. 또한 이번 전시회가 한인단체로는 처음 갖는 예술전시회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참석자들에게 개별 작품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신수경씨는 (국제통화기금, IT 선임위원) 국제 프로토콜과 에티켓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로 여성의 국제의전 등 소프트 스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격식을 갖춘 식사예절에 대해서도 알기쉽게 설명해주었다.

남명호씨는 (이노바 페어팩스 병원, 임상병리학과 과장) '여성의 건강'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정기검진의 중요성과 암의 7가지 증상 및 예방, 여성의 질병관리에 대해 강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술작품 판매를 통해 걷어지는 총 수익금 중 작품 제작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코윈의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1월 말까지 MK 갤러리에서 작품전시가 계속되었다. 이번 예술 전시회는 MK 갤러리와 디씨 지역의 한인계 예술가들과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졌다.

2011년 상임위원회 및 주요 분과 위원회 기획회의

남명호 회장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및 주요 분과 위원회 회원 13명은 지난 1월 13일 모임을 가지고 이번 2011년 코윈 디씨 지부의 전반적인 활동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원활하고 체계적인 코윈 디씨 지부의 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는 별도로 기능별, 직종별 위원회를 신설하고 각 위원회의 의장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번 기획회의에서는 코윈 디씨 지부의 펠로우십 운영을 위한 다채로운 모금활동 및 제 2회 차세대 리더십 세미나 및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었다. 또한 우리 회원들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및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위해 코윈 디씨 지부 웹사이트 신설, 개발 및 뉴스레터 제작에 대해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원소식

• **신수경**씨는 (국제통화기금, IT 선임위원 및 사회의전위원) 지난 2010년 11월,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G-20 정상회담을 위한 총의전 자문관으로 임명받아 IMF에서 한국으로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 **이정희**씨는 (SG Bankcard Service Inc., 사장) 지난 11월 13일 메릴랜드에서 순천향대학과 함께 '신약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동등생물의약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였다.

• **김영기** 박사는 (조지워싱턴 대학교, 교수) 제 18회 한무숙 기념 한국인문학 강연회를 11월 6일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주최하였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한국의 의학, 정신 건강과 유년기: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의학 석학들이 한국의 출산과 유년기에 관련된 의학과 정신건강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강연을 하였다. 또한 제 20회 일본-한국 언어학 컨퍼런스에 초대받아 '15세기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아래아의 재조명'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영국 옥스포드대학교가 주최하였으며 지난 10월 1일에서 3일까지 진행되었다.

• **김광자**씨는(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회장) 지난해 1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고 한국 국회에서 열린 '여성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및 일본 대사관에서 진행된 제 944회 수요학의집회에 참여하였다. 또한 미 워싱턴 지역에서 수집된 3000여개의 일본군 위안부 이슈에 대한 지지 서명용지도 전달하였다.

• **남명호** 박사는(이노바 페어팩스, 임상병리과장) 지난 12월 1일 이노바 중앙 검사센터 내 모든 임상병리서비스를 관리 감독하는 의료과장으로 임명되었다.



• **정찬수, 구수현, 최혜란**씨는 지난 1월 8일 민주평통 신년하례식에서 워싱턴협의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평통의장(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다.

윤순구 총영사가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표창장을 전달했다.

- **김혜경** 씨는(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IT 매니저)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아시안계 미국인 교육협회에 2년 임기인 공동회장직에 선출되었다.

- **신선숙**씨는 (워싱턴미술가협회, 화가) 코스타리카 국립미술관 (Museo de Arte Costarricense)에서 열린 미 워싱턴 그룹 전시회에 참여하여 두점의 작품을 출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전시되었으며 주코스타리카 한국대사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 **발비나 황** 박사는(조지타운대학교, 교수) 1월 27일 미 의회위원회인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에서 전문가 증언을 했다.

2011년 위원회 구성소식

기능위원회 (Functional Committees)

커뮤니케이션 / 출판 / 웹 위원회

Young-Key Kim-Renaud, Ph.D., Sue-Kyong Shin Vittas, Mihae Kim, Hai Kyung (Hia) Kim, Balbina Hwang, Ph.D., ChanSu Chong

정관 및 지명 위원회

Florence Lowe-Lee, Julie Soohyun Koo

세미나 위원회

Myong Ho (Lucy) Nam, M.D., Florence Lowe-Lee, Sami Lauri, Balbina Hwang, Ph.D.

홍보 위원회

Sami Lauri, Florence Lowe-Lee

연회 위원회

Christine Choi, Jung Hee Lee

모금활동 위원회

Christine Choi, Jung Hee Lee, Komelia Hongja O. Kim, Mia Kim

재정 위원회

Myung Ja Lee, Sue Pender, Myong Ho (Lucy) Nam, M.D.

직종 위원회 (Professional Committees)

의료, 보건 위원회

Victoria Y. Suh, M.D., Myong Ho (Lucy) Nam, M.D.

교육 위원회

Balbina Hwang, Ph.D., Young-Key Kim-Renaud, Ph.D.

비즈니스 위원회

Susan Oh, Mihae Kim

국제기구 위원회

Sue-Kyong Shin Vittas

정부 위원회

Balbina Hwang, Ph.D., ChanSu Chong

예술 위원회

Komelia Hongja OKim, Jung Sil Lee, Ph.D., Mia Kim

* **법률, 언론 및 공연예술 위원회** 위원장 및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에도 위원장님들을 도와 함께 일하실 코원 회원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위원회를 선택하시어 여러분의 열정과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여러분의 재능과 경력에 따라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 G-20 서울 정상회담

신수경 (국제통화기금, IT 선임위원 및 사회의전 위원)



2010년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11월 11일 - 12일 이틀간 진행된 G-20 서울 정상회담은 한국정부가 주최한 정부 수장의 다섯번째 미팅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G-8에 속하지 않은 국가가 주최한 첫 회담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제는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으로 글로벌 경제 이슈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심도깊은 토론을 가졌다.

국제 프로토콜 및 사회 관료를 위한 과제

개인적으로 지난 20년동안 상임위원회 연례회의를 위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합사무국 소속, 사회적 프로토콜 담당관으로 숙련된 전문성을 공유하게 된 것은 큰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연례회의는 187개 회원국의 중앙은행총재 및 재무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로서 미국 워싱턴에서 매년 개최되며 해외에서는 매 3년마다 한번 주최되고 있다.

G-20 정상회담 참가국

서울 정상회담에는 G-20 정부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참여국으로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 아프리카, 한국, 터키, 영국, 미국 (영문 알파벳 순)으로 세계 국민총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19개 국가들이다. 이 외에 유럽

연합소속의 장(유럽 이사회와 유럽 위원회)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는 싱가포르, 스페인, 베트남 정부대표가 초청받아 참석하였으며 주요 국제기구와 연합 (아프리카 연합, 동남아 국가연합, 금융안정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제통화기금, 아프리카 신개발 협력계획,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 세계은행 그룹, 세계무역기구) 등 총 33개국의 정부대표단 지도자들이 국제 재정시스템과 세계경제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정상회담 참가자 수는 언론을 포함하여 총 10,000명에 이른다.

공적업무 및 사회적 행사

기본적인 나의 역할은 밑에 열거된 다양한 공적 행사진행을 조언 및 지원하는 일이었다. 매 행사는 초청, 메뉴 디자인, 음식선택, 음식 선보기, 영양을 고려한 창의적인 메뉴선택, 참여자 관리, 꽃 진열, 테이블보, 카드 배열, 선물, 좌석배정 등 신중한 준비와 엄선된 행사 담당자와의 긴밀한 조율이 중요하다. 본인은 10월 21일부터 11월 16일 까지 다음과 같은 행사를 위해 사전준비부터 사후기간까지 역사적인 중요회담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관련 프로토콜 및 철저한 진행 준비를 담당하였다.

2010년 11월 11일 (목요일)

참가자와 배우자를 위한 환영만찬

- 참가자들을 위한 만찬
정부 및 주정부, 국제기구대표자들을 위한 실무만찬
재무장관들을 위한 실무만찬
담당관들을 위한 실무만찬
- 영부인들을 위한 만찬

2010년 11월 12일 (금요일)

- 참가자들을 위한 오찬
정부 및 주정부, 국제기구대표자들을 위한 실무오찬
재무장관들을 위한 실무오찬
담당관들을 위한 실무오찬
- 영부인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오찬
- 참가자들 및 배우자를 위한 만찬



쉽게 표현하자면 내 업무를 커플들을 위해 초청장을 고안하고, 참가자 명단을 짜고, 리셉션 및 좌석 배치 등을 담당하는 웨딩 플래너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업무는 다수의 신부와 신랑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모두가 국제적 프로토콜 매너에 따라 적절하게 대우받도록 신중해야하는 것이다. 회의 주최국이 참가국으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싶지 않다면 어떠한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

참가자들의 서열순서는 토론이나 혹은 식사 시 좌석배치가 결정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열순서는 다양한 프로토콜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자면 국가원수가 총리보다 지위가 높으며 혹은 같은 국가원수의 경우 취임식 혹은 선거날이 앞선 순위에 따라 서열순서가 결정된다. 또한 국제기구에는 G-20 국가보다 낮은 지위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서열은 기구설립일에 의해 정해진다. 취임일을 서열로 정하는 정부기관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적절한 국제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민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조절하면서 프로토콜 담당자들을 지도하여 행사를 성공리에 치렀다.

G-20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진행

참가자들은 이번 서울 G-20 정상회담이 매우 인상적으로 잘 준비되고 진행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경찰청이 컨벤션 센터와 공항의 보안문제를 담당하였으며 한국정부는 회담과 관련된 모든 시위활동을 제재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기간동안 교통체증 개선을 위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차량 훌쩍수 운영제'를 제시하였으나 시민들은 한발 더 나아가 낮시간 차량운전도 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

각국 정상들의 도착부터 출발까지, 환영만찬부터 마지막 만찬까지 모두 잘 매끄럽게 이행되었다. 많은 외국기자들은 2010년 서울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본국에 타전하였다.

2011년 주요행사

2월	뉴스레터 발간 (Volume 2)
2월 25일 (금)	한국 여성가족부 장관 주최 동포간담회 만찬
3월 22일 (화)	코원 정기회의
3월 31일 (목)	코원 디씨 지부 웹사이트 오픈
4월 30일 (토)	코원 디씨 지부 모금 행사 및 회원유치를 위한 아트 전시회 리셉션
5월	제 2회 차세대 리더십 세미나
6월 17일-19일	KOWINNER 국제 컨벤션, 홍콩
6월 25일 (토)	코원 동부지역 세미나, 시카고
7월 31일 (일)	뉴스레터 발간 (volume 3)
8월	코원 연례미팅, 대한민국
9월 22일 (목)	코원 정기회의
10월	모금활동 행사
12월	송년파티